

지구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에 대한  
고찰과 홍익인간사상적 대안

2020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문 현 진



#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에 대한 고찰과 홍익인간사상적 대안

지도교수 김 광 린

이 논문을 지구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문 현 진



문 현 진의

지구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심 준 영



심사위원 \_\_\_\_\_ 김 광 린



심사위원 \_\_\_\_\_ 서 호 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국문초록

#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에 대한 고찰과 홍익인간사상적 대안

이 논문의 목적은 한민족의 건국이념이자 중심사상인 홍익인간사상(弘益人間思想)의 관점에서 현대의 지배적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윤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근본적인 모순에 관하여 홍익인간사상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물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즉 물질적 풍요를 위해 인간의 이기심(利己心)과 탐욕(貪慾)을 이용한다. 그리고 인류공동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륜(人倫)과 도덕가치(道德價值)를 부차적이고 소홀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도덕가치에 혼란을 겪고 축소된 자아의식에 문제를 일으키며 사익(私益)에 빠지거나 끊임없는 경쟁으로 고통을 받는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과도한 경제발전 추구로 인해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조화상생(造化相生)의 철학(哲學)은 특히 그 의미가 크다.

모든 종교(宗教)는 개인과 공동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과 합리만을 중요시함으로써 종교적 가르침을 통한 인간 가치의 회복을 도외시한다. 이는 곧 사회의 두 가지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가치와 도덕가치 중 도덕가치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존재 간의 상생보다는 각자의 사익만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홍익인간사상에서 인간(人間)은 하늘(天)의 품성을 물려받은 신성(神聖)한 존재로 성통공완(性通功完)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의 주체적 존재이다. 이러한 홍익인간사상적 인간관은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경제의 본래의미인 경제제민과 일맥상통한다. 과열된 사익추구와 경쟁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홍익인간사상이 가지는 함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어 : 자본주의, 이기심, 경쟁, 생태계파괴, 홍익인간사상

# 목 차

|                               |    |
|-------------------------------|----|
| 국문초록 .....                    | i  |
| <br>                          |    |
| I . 서 론 .....                 | 1  |
| 1. 연구의 목적 .....               | 1  |
| 2. 연구의 구성 .....               | 3  |
| II . 이론적 논의 .....             | 5  |
| 1. 홍익인간사상의 거시적 개념 .....       | 5  |
| 1) 홍익인간사상의 개념 .....           | 5  |
| 2) 홍익인간사상의 특징 .....           | 6  |
| (1) 성통공완적 인간관 .....           | 6  |
| (2) 우주공동체 세계관 .....           | 8  |
| 2. 자본주의에 대한 거시적 개념 .....      | 10 |
| 1)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         | 10 |
| 2)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 .....        | 12 |
| 3) 자본주의와 홍익인간사상과의 관계 .....    | 14 |
| III .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와 현주소 ..... | 17 |
| 1. 자본주의와 인간 이기심의 관계 .....     | 17 |
| 1) 인간을 바라보는 주류경제학의 관점 .....   | 17 |

|   |           |
|---|-----------|
| 2) 자본주의의 철학적 바탕이 된 칼뱅주의와 애덤 스미스 .....     | 20        |
| 2. 무한경쟁 패러다임과 승자독식사회 .....                | 24        |
| 1) 끝없는 경쟁과 폐해 .....                       | 24        |
| 2) 경제양극화 .....                            | 27        |
| 3.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 .....               | 30        |
| 1) 지구생태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 .....                 | 30        |
| 2) 낭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                    | 33        |
| <b>IV.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b> | <b>36</b> |
| 1. 경제 본연의 의미 실현을 위한 도덕관의 필요성 .....        | 36        |
| 1) 애덤스미스의 도덕관 .....                       | 37        |
| 2) 이기심을 경제한 인류 4대 성인 .....                | 40        |
| 3) 상실된 도덕과 확산되고 있는 이기심 .....              | 44        |
| 2. 홍익인간사상에 기초한 경제 이념의 이해 .....            | 46        |
| 1) 이기심을 극복하는 홍익경제 .....                   | 46        |
| 2) 신(新)패러다임의 태동 .....                     | 53        |
| <b>V. 결론 및 제언 .....</b>                   | <b>58</b> |
| <b>참고문헌 .....</b>                         | <b>61</b> |
| <b>abstract .....</b>                     | <b>69</b> |

# I .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조화상생(造化相生)의 철학인 홍익인간사상(弘益人間思想)의 관점에서 현대의 지배적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윤리적으로 분석해 그 한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근본적인 모순을 홍익인간사상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개인의 사익추구(私益追求)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역설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 어떠한 제약을 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탐욕과 경쟁을 동력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를 지지한 바 있다.<sup>2)</sup>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패하면서 더욱 많은 사회와 국가에 확산되고 적용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이기심과 경쟁이 사회의 부(富)를 축적하고 공공의 이익을 이끌어낸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패러다임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과도하게 강화되고 이로 인해 공동체(共同體)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인간적 윤리와 공동체적 윤리가 근본적으로 상실되기에 이른다. 개인의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에 대한 무한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 공동체적 이익을 통해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도외시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적 활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

1)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김수행 역, 『국부론(상)』(서울: 비봉출판사, 2003), p.19.

2)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저, 심준보·변동열 역, 『밀턴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서울: (주)청어람미디어, 2007), p.27.

자본주의적 대량생산 체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 가치만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무분별한 자원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과 폐기물이 지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익추구와 탐욕으로 인한 공동체의 비평화 가운데 조화 상생을 추구하는 홍익인간사상을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은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한민족이 시원(始原)부터 간직해온 민족 고유의 정통(正統) 사상이다. 국가공동체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윤리, 곧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이다. 홍익인간사상에서 경제 활동의 목적은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에서 열정적이고 성실한 개인과 집단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사회적, 경제적 보상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경제활동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을 담고 있는 3대 경전 중 하나인 『366사(혹은 참전계경)』을 살펴보면, 금전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욕망충족적인 경제개념 대신에 홍익인간사상적 사회구성원들의 경제는 산업을 보전하여 물질로써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육신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치료하며 인간 본연의 성리(性理)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sup>3)</sup> 아울러 인간이 느끼는 기쁨의 근원(根源)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바탕인 사랑하고 베푸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이 하늘의 이치에 역행하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롭고 천해진다.”<sup>4)</sup> 홍익인간사상의 경제의 중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인 베풀고 나누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더 나아가 경제는 홍익인간(弘益人間)·재세이화(在世理化)가 이룩된 선의지사회(善意志社會) 단계로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만연하여 옥석혼효(玉石混淆)한 이 시대에 홍익인간사상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사상의 가르침에 따라 나 자신만을 위한 축소된 자아의식이 아닌, 타인과 자연을 나와 같이 여기는 크고 넓은 자아의식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

3) 최동환, 『366사 참전계경』(서울: 지혜의나무, 2007), pp.317-318.

4) 위의 책. p.319.

우주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적 핵심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기심(利己心)과 무한경쟁(無限競爭)으로 인해 급속히 진행되는 공동체와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 대 인간, 인간과 자연, 동양과 서양, 종교와 종교, 문화와 사회, 과거와 현재 등 이원성(二元性)과 분리성(分離性)에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홍익인간사상은 자본주의 체제 하의 이원성, 분리성을 합일성(合一性)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또한 파편화된 인간의 의식(意識)과 관념(觀念)을 우주 만물의 전일성(全一性)으로 연결시켜 인류가 우주만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구성

앞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 서론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익인간사상 적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논의에서는 홍익인간사상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여 그 거시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고찰하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홍익인간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III.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와 현주소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인간이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살펴보고, 유럽사회에 자본주의라는 영리적(營利的) 기질이 확산된 역사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칼뱅주의와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관해 고찰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극단화되는 개인적 이기심과 이로 인한 공동체파괴, 무한 경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적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야기하는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환경 문제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와 부작용을 규명하였다.

IV.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는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홍익인간사상에 기초한 경제이념의 확립의 필요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아울러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넘어서 정신문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홍익인간사상적 경제이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서술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 과제를 밝히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Ⅱ. 이론적 논의

### 1. 홍익인간사상의 거시적 개념

#### 1) 홍익인간사상의 개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를 추구해야만 하는 이상과 목표로 제시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것임이 자명하다.<sup>5)</sup> 고조선의 건국이념(建國理念)으로 알려진 홍익인간사상은 혹자에 따라 ‘한(Oneness) 사상’<sup>6)</sup>, ‘천지인(天地人)사상’, ‘인내천(人乃天) 사상’, ‘신교(神敎),’, ‘풍류(風流)’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韓民族)이 시원부터 간직해온 고유의 정통사상으로 국가공동체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윤리, 곧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이다. 이는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가 아닌 우주적 질서와 조화에 의해 태어난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의식이 담겨 있는 사상<sup>7)</sup>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전개를 통하여 우주적 질서에 따르는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즉, 대립과 분리 및 경쟁으로 치닫는 기존의 사회사상과는 전적으로 차별화되는 홍익인간사상은 우주와 대자연의 이치에 관한 자각(自覺)에 기초하여 우주만물의 조화로운 운운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중심사상이다. 역사적으로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겪어내면서도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의 내재적 관념으로 면면히 흘러 민족의 정신적 토대로 존재했다. 즉,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의 근본 정체성(正體性)이다.

독일의 실존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세계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정치를 2,000년이 넘게 장구한 세월동안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고조

---

5) 이용수, 『조화로운 가족공동체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6) 최민자, 『무엇이 21세기를 지배하는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p.32.

7) 김광린,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평화학논총』 제7권 2호 (2017). p.116.

선이 있었음을 나는 압니다.”<sup>8)</sup>라고 진술하였다. 세계역사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평화정치를 오래도록 이룩한 고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서 홍익인간사상은 ‘천부경(天然性)’에 기인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익과 사익의 고차원적인 합일(合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도덕의 개인적 완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법치적 완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상<sup>9)</sup>이다. 고조선은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철학이 고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 이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목적인 바른 다스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조선은 오랜 기간 조화와 평화를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홍익인간사상을 통해 고조선이 써내려간 평화의 역사는 지도(指導)와 정치(政治)의 이념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만백성의 의식과 관념에까지 널리 미쳐 우주와 대자연의 원리, 지상세계와 생명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상하 계층의 구분 없이 지속됐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토대로 나라와 공동체, 인간의 일생에 조화와 상생의 철학과 문화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는 한민족의 국통맥(國統脈)<sup>10)</sup>을 따라 면면히 계승되었다.

## 2) 홍익인간사상의 특징

### (1) 성통공완(性通功完)적 인간관

역사적으로 고서 속에 홍익인간사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홍익인간(弘益人間)’<sup>11)</sup>, ‘재세이화(在世理化)’, ‘광명이세(光明理

---

8) 이을형, “‘버려야 산다’ …유물·유적가공 중·일 역사왜곡”,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900](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900) (검색일: 2019.8.1.).

9) 조명래, “우리헌법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연구 : 홍익인본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pp.90-91.

10) 계연수·이유립 저,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 2013), p.61.

11) 일연 저, 미리내공방 엮음,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국유사』(서울: 정민미디어, 2018), p.14.

世)’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우선 그 뜻을 살펴보면,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과 널리 이로운 사람을 동시에 뜻한다. 재세이화는 세계에 거하며 제대로 살피어 이치(理致)대로 꾸려나간다는 뜻으로 우주(宇宙)의 이치, 하늘(天)의 이치에 따라 지상세계를 조화(造化), 교화(教化), 치화(治化)하여 진리(眞理)가 실현된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광명이세’는 밝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비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뜻을 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널리 이로운 사람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한 다스림이 지극할 때 이 세상은 올바른 도(道)로써 진리가 실현된 이상세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실현은 밝은 빛 즉, 높은 의식과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정치(政治)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는 곧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眞理訓)」에서 말하는 ‘성통공완(性通功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에서 자아 실현이란 ‘자신에 내재하는 신성을 발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와 같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본성적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아실현의 차원에서 달성한 ‘하나(一)’의 완전성을 현실세계에서 실천하고 구현하여 이 세상을 조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사상의 평화적 이상이자 비전인 것’이다.<sup>12)</sup> 성통(性通)한 자들의 높은 의식과 밝음 속에서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만물이 공생공영(共生共榮)하는 지상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 노력과 시도 즉 공완(功完)이야말로 조화 상생의 철학인 홍익인간사상을 실현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의 성통공완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의 품성(品性)을 온전히 물려받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그러한 인간은 하늘을 대신하여 지상세계의 만물을 조화롭게 잘 운용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sup>13)</sup> 널리 이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만물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고 높은 도덕의식(道德意識)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천지대자연이 무궁(無窮)한 조화의 실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자연(大自然)의 이치에 따라

12) 박금혜,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22.

13) 김광린, “홍익인간, 화랑도, 그리고 지구시민정신”, 선도문화 24권0호, (국학연구원, 2018), p.13.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도 조화로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와 대자연의 이치가 천지인(天地人)의 이치와 통하며, 그 이치가 인간 지도자의 정치로 실현될 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치대로 평화로운 상태에 이른다고 한민족은 인식했다. 즉, 하늘의 이치와 뜻을 살피 사심(私心)이 아닌 공심(空心)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운용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접화군생(接化群生)<sup>14)</sup>이 대자연의 이치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짐 없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경지(境地)를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화의 원리, 교화와 치화의 법은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 『366사(혹은 참전계경參仝戒經)』에 고스란히 담겨져 내려왔다.

## (2) 우주공동체 세계관

『천부경(天符經)』에 따르면 사람을 포함한 우주 내 모든 존재가 ‘하나(一)’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우주의 근본원리인 ‘하나(一)’로부터 갈라져 나온 만물(萬物)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天地人)이라는 삼극(三極)으로 표현된다. 근본원리인 ‘하나’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갈라져 나온다는 관점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천, 지, 인, 곧 우주 내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은 우주 만물이 ‘일가(一家)’ 곧 하나의 집안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주 내 모든 존재를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사상, 곧 우주공동체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생과 조화를 함축하는 것이다.<sup>15)</sup>

또한, 이러한 관점은 근원적 존재와 현상계를,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 곧 우주 만물이 하나의 근원을 공유한다’<sup>16)</sup>는 합일(合一)의 관점을 의미한다. ‘하나(一)’는 자유의지로서

14) 김동환, “홍익인간·접화군생은 지고지선의 인류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69> (검색일: 2019.7.10.).

15) 박금혜,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20.

16) 송재근, 『한민족 통일의 평화학적 접근-홍익인간사상의 평화비전을 중심으로』

큰 사랑(大德)과 큰 지혜(大慧) 그리고 큰 힘(大力)의 속성을 보유하는바, 우주 만물은 그 자유의지와 속성을 모두 공유한다.<sup>17)</sup> ‘하나(一)’의 속성을 공유하는 우주공동체 내 모든 존재 간 조화를 통하여 평화의 질서를 이룩하는 것이 우주공동체의 이상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

홍익인간사상에서 특히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융합하고 있는 존재로서 곧 ‘하나(一)’의 근원(根源)을 온전히 공유하는 존재이다. 즉 한민족 고유의 사상에서 사람이란 ‘하나(一)’의 품성과 능력 그리고 자유의지를 온전히 내재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이며, 평등한 주체적 존재이다. ‘하나(一)’의 속성을 공유한 모든 존재가 우주공동체 일원으로서 상호 연관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우주, 이것이 ‘하나(一)’의 자기 현신이며, 그 중심에 조화와 평화의 주체로 사람이 존재한다.<sup>18)</sup> 조화란 상호 간 다름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획일화(劃一化)가 아닌 상호 상이(相異)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잘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간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조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최적으로 잘 결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관용과 신뢰, 양보 그리고 배려라는 가치들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사람 간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즉, 홍익인간사상에서 사람은 ‘하나(一)’의 속성과 품성을 온전히 내재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역할을 보유한 평화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늘과 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일과 조화의 관점을 토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삼원 간의 상이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를 위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분명 사람만이 완전한 존재이나 이는 사람이 ‘하나(一)’로부터 함께 파생된 존재들 간 조화를 구축해야 할 능력과 책임을 보유한 존재임을 함축하는 것이다.<sup>20)</sup>

---

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94.

17) 김광린, “‘한(하나, 一)’과 한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홍익인간”, 『평화학논총』, 제5권 1호, 2015. 6, pp. 13-15.

18)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서울: 동방의 빛, 2010), pp.30-31.

19) 박금해,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21.

## 2. 자본주의에 대한 거시적 개념

### 1)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구한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와 중세의 화폐경제에서 자본주의 특징들이나 자본주의적 요소가 때때로 발견되지만, 동서양의 고대와 중세 시대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사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과거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했지만 고대나 중세 사회를 자본주의 체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자본주의는 사회의 극소수인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었다. 귀족, 지주, 군인, 농부, 전문직업인, 장인 노동자들까지도 자본주의와 거의 관련이 없었다.”<sup>21)</sup>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거래를 통해 얻는 실질적 효용을 추구하며, 거래 물품과 서비스 자체에 중심을 둔 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거래와 경제활동 자체가 부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한다. 그리고 부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래 및 경제활동은 타인을 가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 서유럽 봉건제도(封建制度)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상업의 전성기를 지나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sup>22)</sup>하여 공업 팽창과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19세기경, 독일과 미국으로 보급된 자본주의는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시장경제, 자유경제,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등으로 불리며, 인류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는 자본주의는 워낙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인 탓에 아직까지도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와 현대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

---

20)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 (서울 : 동방의 빛, 2010), p.87.

21)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저, 이재규 옮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3), p.47.

22) 두산백과,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  
18(검색일: 2019.7.19.).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는 저서에서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이분법의 적용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즉, 기존의 축적된 부를 가지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소외(alienation) 관념에 기초해 자본주의는 교환을 위한 생산체계가기 때문에 노동의 산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다.<sup>23)</sup> 부(富)와 재산은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에게 생산수단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된다.”<sup>24)</sup>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박세길은 “자본주의 사회를 권력의 원천 중 자본이라는 이름의 부(富)가 권력을 생성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 사회”<sup>25)</sup> 즉 지배 권력이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체제라고 보았다.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L. Heilbroner)는 인류 사회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3대 경제체제로서 ‘전통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명령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를 구분하였다. 그는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가 명확히 자본주의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현대 경제학이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 “시장 체제는 겉으로는 통제가 없어 보이는 사회에서 질서와 효율성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도록 사회를 조직하는 복합적인 양식이다.”라고 서술했다.<sup>26)</sup> 박길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이 자본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다.”<sup>27)</sup>라고 지적했다.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

23)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 지음, 양길현·변종현 옮김,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4), p.159.

24) 채사장 지음,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서울: 한빛비즈(주), 2014), p.125.

25) 박세길 지음, 『자본주의, 그 이후』 (파주: 돌베개, 2012), p.48.

26) 로버트 L. 하일브로너(Robert L. Heilbroner)·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 저, 홍기빈 옮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도서출판미지북스, 2010), pp.35-51.

은 지금의 경제시스템을 자본주의라는 용어 대신 ‘화폐시스템, 소유시스템’이라고 칭하며, “이기심과 탐욕이 보상받는 시스템”<sup>28)</sup>으로 정의했다.

반면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강정모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와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다양한 수많은 가계·기업 및 정부가 각각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펼쳐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와 같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제체제”<sup>29)</sup>라고 자본주의를 정의했다. 이상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sup>30)</sup> 그 특징으로는 “첫째,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셋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넷째,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다섯째,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1)</sup>

## 2)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란 단어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의 단어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으로 구성되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그 체제가 유지되고 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과 그 소유자는 보다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 자본이나 개인과 경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본은 시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

27) 레이먼드 W. 베이커(Raymond W. Baker) 지음, 강혜정 옮김,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서울: 지식의숲, 2007), p.7.

28) 찰스 아이젠슈타인(Charles Eisenstein), 정준형 옮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파주: 김영사, 2015), p.25.

29) 강정모, 『홍익국부론』(서울: 율곡출판사, 2016), pp.143-144.

30) 류재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34.

31) 두산백과,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 18(검색일: 2019.7.19.).

되고, 이는 ‘새로운 시장상황의 발달’을 야기한다. 또한 상품의 과잉생산이나 효율적인 자본관리를 위한 임금의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道德性)과 같은 비효율적 요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인간에게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sup>32)</sup> 자본주의 정신 혹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현대인들을 물질, 자본, 재산, 이윤, 이익에 관해 과도한 몰입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인류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인륜과 도덕의식은 비효율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시된다. 스스로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조직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타인과 이웃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가에 따라 판단되기도 한다.’<sup>33)</sup>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과 재능으로 성공한 개인은 지도자가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재능을 십분 발휘하는 지경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교환수단으로서 유용한 화폐(貨幣)와 자본은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성을 뛰어넘어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수준에 이른다.

근대자본주의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慾望)을 추동력으로 삼았고, 그 추동력이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산업이 돌아가는 방식’<sup>34)</sup>을 도모하였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자극한 근대자본주의는 오늘날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와 닿았고, 그로 인해 무한 경쟁 체제와 금전만능주의가 당연시되는 시대적 결과를 낳았다. 오랜 인류역사 동안 절제되거나 혹은 억눌려왔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화폐와 사익추구라는 합법적인 탐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망과 탐욕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적이거나 욕망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 이기적이며 그러한 이기심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 주입된다.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

32) 조영재,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도덕성 상실과 회복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6.

33) 위의 논문. p.15.

34) 이미림, “유교, 공감과 소통의 경제학: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과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권 3호 (2017), p.64.

이 부분을 정확히 진술하였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 몰아넣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35)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은 돈과 이윤을 벌어들여려는 개인과 집단의 탐욕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과 집단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해치게 되더라도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하의 개인적 이기심과 탐욕이 그 한계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 지구라는 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 체제는 이를 가속화할 뿐 견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토대인 홍익인간사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극단화 현상을 개선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자본주의와 홍익인간사상과의 관계

동양에서 ‘경제’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중국 고대 사상가인 장자(莊子)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苦難)에서 구제(救濟)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처음 등장한다.<sup>36)</sup> 즉, ‘경제’란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며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공동체적 윤리와 인륜을 도외시하게 되었으며, ‘경제’는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였다. 인간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윤리 및 인륜이 실종됨으로써 오히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배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윤리적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아담 스미스 자신이 생각했던 것’<sup>37)</sup>과 달

---

35)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2』(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p.171.

36) 徐琮澈, “[사필귀정] 모두에게 좋은 것”,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3060610375930247> (검색일: 2019.8.3.).

37)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김광수 옮김, 『도덕감정론』(한길사, 2016), pp.329. 재인용: 조영재,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도덕성 상실과 회복에

리 “선의 실현이 ‘공동체 안에서의 실현’ 이 아닌 ‘개인중심적인 실현’ 에 두게 됨으로 그 동기가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자신의 윤리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곧,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이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윤리성은 상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38)</sup> 공동체적 윤리성의 상실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실업, 세계 경제의 침체 현상, 빈부 격차의 심화, 환경 재난, 지구 자원의 고갈, 악화된 기후변화, 국가와 국가 간 국경분쟁, 핵무기의 확산, 신뢰를 잃은 정부, 테러리즘, 강력한 유형성 바이러스, 치솟는 물가와 범죄 등 점점 불확실해져 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sup>39)</sup>

자본주의가 야기한 사회 윤리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물신(物神)이 지배하는 상품 소비 사회’<sup>40)</sup>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도덕성과 윤리는 부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탐욕과 이기심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적 도덕성과 윤리를 경시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비정(非情)함을 당연시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자가 된 개인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게 된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익숙해진 인간은 권태에 빠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懷疑)에 빠져 인간 사회를 경쟁적으로만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망각한다. 자본주의라는 부조리(不條理)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막고 은폐하기 위하여 인간을 이윤추구라는 거대한 기획으로 가두며, 인간이 상호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박탈한다. 결국 자본주의 하의 인간은 자아(自我)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며,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상품의 물신화, 불평등, 인간소외 그리고 빈부 격차의 심화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기된 탐욕의 정당화와

---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12.

38) 조영재,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도덕성 상실과 회복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12-13.

39) 오성주, “21세기 위기사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7집, 13-49, (2017), p.16.

40) 강신주 저, 『철학 VS 철학』 (서울: 도서출판 오월의봄, 2016), p.258.

무한 경쟁, 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는 홍익인간사상의 우주적 원리 및 대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성통공완적 인간관과 우주공동체 세계관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강력한 관념(觀念)의 틀이라고 할지라도 인류(人類)의 유구한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사회체제 중 하나일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란 대체 불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한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운행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홍익인간의 이상을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욕망에 이끌려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존재였으나 홍익인간사상 하에서는 성통공완(性通功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우아일체(宇我一體)의 존재인 인간’<sup>41)</sup>이다. 인간은 질서 속에 자유를 가지며 우주운행 근본원리를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DNA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요컨대, 현대인들이 스스로 우주공동체 일원임을 자각하고 지구가 자전하듯이 자유를 누리면서 지구가 공전하듯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맺는다면 자본주의 체제하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를 구현해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홍익인간사상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결과를 점검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홍익인간사상의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41) 김광린, “한중일 삼국의 천손문화와 평화사상”, 『선도문화』, 제11권, 2011년 8월.

### Ⅲ.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와 현주소

#### 1. 자본주의와 인간 이기심(利己心)의 관계

##### 1) 인간을 바라보는 주류경제학의 관점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본주의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제적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간략히 정의한다면 자본과 이윤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資本)은 축적된 부와 재산이며, 이윤(利潤)은 거래를 통해 번 돈이다. 축적된 부와 재산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은 다시 기존의 자본과 결합되어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윤의 발생은 재산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그 재산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자본의 성격이다. 돈과 관련된 이념이 일종의 ‘주의(主義)’가 된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주류경제학(主流經濟學)과 깊게 관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 이윤 추구에 대해 어떤 제약을 두는 것을 인정하려들지 않았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나, 가족관계도 이기적 계산을 중심으로 연구한 게리 베커(Gary Becker)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sup>42)</sup>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윤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선량함과 너그러움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sup>43)</sup>이라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시

42) 임일섭, “애덤 스미스 구하기: 좋은 목적, 나쁜 방법”, 『경상논총』 제 35권 1호 (2017), p.18.

43) 정혜연, “경제를 윤리로 접근하면 안 돼”,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7100021>(검색일: 2019.11.20.).

민단체인 자유기업원(자유경제원)은 “이기심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기심'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 44)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기심이란 사익추구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당연히 경쟁으로 이어진다.” 고 진술하며,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사회적 협력의 기초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절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과정이다. 게임의 종류와 상대를 달리하여 경쟁은 무한 반복된다. 승자와 패자가 정해진 것도, 항상 같은 종류의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반복성과 비교우위를 통해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사회적 협력의 기초로서 기능한다.” 45)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21세기 주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이용하여 물질의 생산 및 유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철학적 바탕은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의지(自由意志) 및 사유재산(私有財産)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연결되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즉, 주류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한 상태로,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쳐왔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이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현대인들의 관념과 의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지적했듯이 “경제학이 제왕의 지위를 차지한 상태로,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46)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공익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신념으로 인해 온건한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

---

44) 자유경제원, “이기심과 이타심…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기업원」, [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검색일: 2019.11.18.).

45) 자유경제원, “이기심과 이타심…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기업원」, [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검색일: 2019.11.18.).

46)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안기순 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서울: (주)미래엔, 2012), p.23.

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50만 달러,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라는 예를 들어 이를 증명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돈에 몰입하여 언제든지 마음껏 벌고 마음껏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이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사익추구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통제되며 공공과 사회의 안녕이 저절로 보장된다는 주류경제학의 교육과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경제논리의 영향 아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의 성격을 띤 자본이 경제와 사회의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당연시된다. 필요 이상과 이하에 대한 기준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에 맡겨진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해 버는 돈과 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인식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돈으로 의식주(衣食住)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많은 것을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나쁘지 않은 일이며,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 혜택에 못지않게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은 돈과 자본에 속박되어버리고, 이익을 위한 생산과 화려한 소비를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진리의 준거점이 된 자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거나 완성을 향한 존재가 아닌, 자본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주체로 자신을 이해한다.’<sup>47)</sup> 이로써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극대화된다. 극대화된 사익추구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윤리와 도덕을 도외시하고, 돈과 자본이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인륜과 도덕의 추구보다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행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과도한 이익추구를 부추기는 것의 이론적 토대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10년에 걸쳐 1776년에 완성한 『국부론』과 함께 칼뱅주의(Calvin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7)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18416&cid=42074&categoryId=42074>(검색일: 2019.11.9.).

## 2) 자본주의의 철학적 바탕이 된 칼뱅주의와 애덤 스미스

미국의 진보경제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는 금융과 절제를 강조하는 교회의 지배를 받던 유럽사회가 어떻게 영리적 세계의 기질을 장려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종교적 변화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개신교 종교 개혁가였던 장 칼뱅(Jean Calvin)의 신학적 관점이 유럽 사회에 확산된 것에 주목했다. “칼뱅주의자들은 청렴하고 엄격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고, 무엇보다도 근면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세속에서의 활동을 헛된 것으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칼뱅주의자들은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의 땀을 흘리는가가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태도가 나오게 되면 곧이어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둘수록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라나게 된다. 칼뱅주의는 가톨릭과는 정반대로 부의 추구하고 영리적 세계의 기질을 적극 장려하는 종교적(宗教的) 분위기를 깔아주었던 것이다.”<sup>48)</sup>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수백 년 동안 자행되어진 가톨릭교회의 추문과 폐해를 고발하면서 일으킨 종교개혁(宗教改革)의 뒤를 이어, 칼뱅은 개신교의 기본 정신과 교리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한 인물이다. 당시 가톨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영리적 세계의 기질을 열어주는 칼뱅의 신학적(神學的) 관점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칼뱅에 따르면 모든 재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모든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함으로써 생겨났으며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창조주의 부성적 호의와 사랑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그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그런 호의는 인간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자연의 재화들을 향유하는 것이다.”<sup>49)</sup> 칼뱅은 돈과 재물을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것이 돈과 재화에 관한 칼뱅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은 부나 재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

---

48) 로버트 L. 하일브로너(Robert L. Heilbroner) · 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 저, 홍기빈 옮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2010), p.125.

49) 이오갑, “칼뱅에 따른 돈과 재화”,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0권 40호, (2014), p.10.

고 축적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sup>50)</sup> 칼뱅의 교리를 접한 사람들은 돈과 재화를 하나님이 인간이 풍요롭도록 예비하셨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스럽게 여겼다고 할 수 있다. 돈과 재화는 그것을 벌어들이는 직업의 유용성과 깊게 관련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익의 길을 열어준다는 관념이 생성되고, 선택받은 자들은 이익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된다. 칼뱅주의가 이익추구를 신의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칼뱅주의가 부의 추구하고 영리적 세계의 기질을 적극 장려하는 종교적(宗敎的)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로버트 하일브로너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직업생활의 성공으로 얻어진 물질과 돈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표시였고, 물질과 돈은 더 이상 죄악시 되지 않았다. 칼뱅주의에서 최소한 돈과 재화에 대한 죄악은 재산을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 흥청망청 쓰는 것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발간한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업자나 빵집 주인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sup>51)</sup>라며, 인간의 경제 행위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즉 이기심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개인의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자유경제 및 시장경제의 엄청난 발전과 확장성을 보여준 현 자본주의와 연결시켜 평가하자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자 경제활동에 임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와 사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과 사회의 이익 및 자본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물질적 풍요는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과 집단, 기업은 육체적·정신적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로 적절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경제의 원동력은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도리어 인류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대거 발표되고 있으며,

50) 위의 논문. p.13.

51)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김수행 역, 『국부론(상)』(서울: 비봉출판사, 2003), p.19.

에덤 스미스의 이러한 주장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덤 스미스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견해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목사의 아들이며 도덕철학자로 남길 원했던 에덤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에덤 스미스는 시장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도덕감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52)</sup>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전제할 수 있었던 요소는 인간의 사익추구에 대한 죄 사함을 열어준 종교적 교리와 경제이론이다. 인간의 개인적 사익추구가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활동이 경제의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이기심의 극대화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도덕과 윤리의 실종과 같은 부작용 앞에서 물질의 풍요가 무조건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하고 이용하는 자본주의는 인류 사회의 영성과 인간 내면의 평화, 조화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기심과 상반되는 가치로서 이타심, 친절, 박애, 희생정신이 배제되거나 소극적으로 추구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내면의 평화,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없다. 이기심(利己心), 즉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인간은 타인과 나를 분별(分別)하고 분리(分離)하는 의식이 증가하고, 그러한 인간의 의식(意識, Consciousness)수준으로 인해 이기적인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의식은 경쟁의 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의 부가 더 큰 것인지, 누구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인지, 누구의 명성이 높은지를 비교하고 승리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한 자는 자만(自慢)과 방종(放縱)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며, 타인을 믿는 마음과 이타심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배한 사람은 자기 학대와 자기혐오, 무작위적 분노, 타인과 사회에 대한 증오에 빠지기도 한다. 이기심과 경쟁은 인간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성의 인간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만 몰아간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선한 마음가짐이 사라진 공

---

52) 도메다쿠오(堂目卓生) 저, 우경봉 옮김, 『지금 에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서울: 도서출판동아시아, 2010), pp.104-105.

동체는 결코 조화로울 수 없다.

만약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고 인류 전체가 자원을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인간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타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탐욕과 이기심, 경쟁심 따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타인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그물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아무리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탐욕이나 이기심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쩌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발현하는 주된 요인인지도 모른다.

지구는 대자연의 순환에 따라 무한히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대자연에 요구하는 자원의 양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모든 개인과 조직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단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나무가 1주일 만에 50m의 높이로 자라야 한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와 돼지가 자라는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장촉진제 등 온갖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충분히 비축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또다시 땅과 바다를 파헤쳐 석유를 찾아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짜 돈은 금융사무실과 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탄생한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음식물과 가구, 자동차, 옷과 집 등 모든 것이 대자연에서 탄생한다. 모든 개인과 기업이 자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펼치는 순간 지구의 생명력은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자본주의는 나무가 자라는 속도, 소와 돼지가 자라는 정상적인 속도를 기다리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각 개인과 조직의 이윤과 자본을 위한 쟁탈전은 극히 치열해지게 된다.

## 2. 무한경쟁 패러다임과 승자독식사회

### 1) 끝없는 경쟁과 폐해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궁핍하고 불쌍한 나라였다. 지난 70여 년 동안 남한은 불굴의 민족성과 세계 각국의 배려있는 지원에 힘입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강렬히 염원했던 경제대국의 대열에 올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예술, 언론, 체육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무한(無限) 경쟁(競爭)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弊害)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튜더(Daniel Tudor)는 한국에 산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대학교, 직장, 결혼 상대,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다른 이들과 맞서 끝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심지어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영어에서 빌려온 "파이팅!"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sup>53)</sup> 그의 말처럼 한국에서 경쟁이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은 독하게 살아야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진다. 경쟁(競爭)은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목표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경쟁에서 승리한 도전자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하나밖에 없는 우승자의 자리,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 많은 참가자들이 제일 아래 계단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대결 과정을 통해 흥분하고 감동을 만끽한다. 또한, 출연하는 경쟁자들

---

53) 다니엘 튜더(Daniel Tudor) 저, 노정태 옮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과주: (주)문학동네, 2013), p.101.

에 대해 시청자들의 인기투표가 중요한 성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청자들은 경쟁의 과정을 즐기고 승자독식의 결과를 당연하게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은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쟁의 과정을 즐기고 승자독식의 경쟁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유행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본주의적 경쟁 패러다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 패러다임은 현재 교육체계(敎育體系)에도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생들은 무수한 시험의 결과로 노력을 평가받는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분류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등수를 중요시하는 경쟁의 교육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정점을 찍는다. “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을 올리기에 급급해 사람 기르는 교육을 놓아버린 사이,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지키고 있다. 아이들의 자존감, 자신감, 꿈, 희망을 살리는 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하다.”<sup>54)</sup>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생들의 경쟁은 지속된다. 더 나은 학점을 받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해오던 경쟁을 당연하게 지속하며, 옆 사람보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온갖 자격증을 따는데 매달린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대의 부조리를 견제하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대학교조차도 경쟁과 정의의 딜레마 속에서 혼란스럽다. 대다수 대학교 홍보물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알리기 위해 취업률과 뛰어난 경쟁률을 자랑하기 바쁘다.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 좋은 대학교란 지성인의 요람이 아닌 경쟁력을 키워주는 곳, 취직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경쟁과 순위, 학벌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무한 경쟁의 트랙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도 크고 작은 경쟁이 여전히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친구와 이웃과의 경쟁, 승진을 위한 동료와의 경쟁, 부서경쟁, 기업경쟁, 지역경쟁, 파벌경쟁, 국가경쟁, 가문경쟁, 자식교육경쟁, 남성과 여성의 경쟁, 젊은이와 중년층의 경쟁, 자본과 노동의 경쟁 등.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대다수 한국인들의 행복감은 바닥까지 내려갔고 자살률은 급속도로 증

---

54) 이승헌 저,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2018), p.29.

가했다.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18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25.8명에 달한다.” 55) “주요 자살 동기는 연령대별로 상이하였으며, 10~30세 정신적 어려움, 31세~50세 경제적 어려움, 51~60세 정신적 어려움, 61세 이상 육체적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56)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이 전제된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경쟁 패러다임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경제라는 울타리에만 존재해야 할 것만 같은 경쟁의 힘 혹은 경쟁의 원리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많은 돈, 높은 평수의 아파트, 다량의 식량 보유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물질(物質)은 곧 행복(幸福)’이라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자본주의적 환상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과 영성을 무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돕는 일보다 경계(警戒)하고 배타(排他)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아졌다. 전 지구적 현상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個人)과 조직(組織)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에서 승자(勝者)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웃을 이기지 않으면 나 자신의 성공을 담보(擔保)할 수 없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큰 재력과 사회적 명성을 얻은 타인과 비교하며 만족할 줄 모른다. 물질적 가치의 추구를 통한 경제적 성공만을 중시한 결과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가 도래하였고 정신적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개인이 지닌 돈과 자본의 수준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기에 이르면서 가난한 자는 실패한 인간, 부유한 자는 성공한 인간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허탈감과 절망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한국사회를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지옥과 같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헬조선' 57)이라고

---

55) 정인호,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1위?”, INSIDE,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82>(검색일:  
 2019.8.16.).

56) 박상훈, “자살률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2위...60대 이상 자살률은 1위”, 인터뷰365,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97>(검색일:  
 2019.8.13.).

57) 네이버 국어사전, “헬조선”,

부른다.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에 대한 회피 현상도 두드러지는데, 상당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아성찰을 통한 진로의 탐색보다는 안정된 수입과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하는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길에 몰려 들고 있는 것이다.

## 2) 경제양극화 문제

경쟁적 자본주의체제 혹은 신자유주의로 확산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 촉발되었다. 경제 양극화(陽極化) 문제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치열한 경쟁이 멈추는 때는 한 쪽이 산업을 독점하거나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을 때뿐이다. 아프리카 및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기아에 허덕이는데, 지구 반대편의 부유한 나라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전 세계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로 구분되며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모든 지표가 극명하게 다르다. “전 세계 인구 중 거의 30억 명이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 전 세계 200대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활동의 28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고용 비율은 0.25퍼센트도 못 미친다. 전 세계의 200대 부자들이 소유한 재산액은 전 세계 25억 빈곤층 전체의 연간 수입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sup>58)</sup>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 가장 부유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지구 전체 부의 생산 중 84.7%를 차지하며 전체 무역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전 세계 나무 사용의 85%, 금속 가공의 75%, 에너지 사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sup>59)</sup>은 전 세계인의 평등과 평화를 부르짖는 부유한 국가들 일명 선진국들의 인도주의 정신에 비해 꽤나 부끄러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제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부(富)의 척도라고 여겨지는 토지 부동산만 보아도 지나치게 특정한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2014년

---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7%AC%EC%A1%B0%EC%84%A0&range=all>(검색일: 2019.9.10.).

58) 데이비드 보일(David Courtney Boyle)·앤드류 심슨(Andrew Simpson) 저, 조균현 옮김, 『이기적 경제학 이타적 경제학』(서울: 사군자, 2012), p.242.

59) 강연희, “전 지구적 생태 파괴에 대응하는 여성신학적 생명 살림”,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26.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1%의 가구는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해 발생하는 토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00조 원에 달한다. 1년 국민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된다. 아울러 토지 부동산 보유세는 0.3% 정도지만, 자동차 보유세는 시가의 1.8% 정도라서 과세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sup>60)</sup>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공개념(土地公概念)’과 ‘국토보유세(國土保有稅)’와 같은 정책(政策)이 논의되고 있다.

현대인은 모두 자유시민인 것처럼 보여도 돈과 자본의 수준에 따라 암묵적인 계급으로 구분되며 보유한 재산의 수준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경쟁적 자본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은 당연한 일이며, 경쟁에는 승리와 패배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는 경쟁의 승자독식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두고 벌이는 경쟁 패러다임 속에서는 정의와 도덕이 배제된 불평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한 기업이, 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쟁패러다임과 경제양극화는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무한경쟁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한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는 경제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승자가 승리를 반복하고 자원과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경쟁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경쟁의 결과를 통해 부를 획득한 승자는 조금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고 소유를 독점하고 이를 세습한다. 승자독식이 독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야기한다. 경제, 사회, 정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경쟁과 승자 독식, 독점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조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

60) 이재준, “[이재준칼럼]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842>(검색일: 2019.8.15.).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리오 휴버먼(Leo Huberman)은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경제 행위와 비경제 행위에 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친구나 이웃에게는 하지 않을 짓을 사업상의 거래로 알게 된 남에게는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업에 관해 그 밖의 활동에 관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제조업자는 경쟁자를 파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사업을 위해 덤핑 판매를 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특별 리베이트를 한다. 경쟁자들을 도산으로 몰아넣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을 파멸에 빠뜨린다. 제조업자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다.”<sup>61)</sup> 그의 말처럼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명목 하에 이기심과 경쟁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는 하지 못할 일들을 사업적 경쟁자에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절친한 친구를 속이는 행위가 최고의 유용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때 유용성 원리에 근거한 공리주의에 따르면 친구를 속이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윤리적 직관과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sup>62)</sup> 우리의 윤리적 직관 및 도덕적 감각과 전혀 합치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이 허용하고 확대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일 것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쟁 패러다임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과 양심(良心)의 가책(呵責) 사이에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내게 이익은 되지만 남에게 이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연과 생태계는 파괴되지만 내게는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양심과 이윤의 딜레마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중심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는 현실적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인간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개인의 사익추구가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에서 공동체적 조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무한 경쟁을 통한 차별의 심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61) 리오 휴버먼(Leo Huberman) 저,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서울: 책벌레, 2000), p.57.

62) 장동의 저, 『덕 윤리』(서울: 씨아이알, 2017), p.20.

### 3.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

#### 1) 지구생태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자본주의적 가치판단기준(價值判斷基準)은 생명의 터전으로서 지구(地球)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 이미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경고는 넘쳐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쟁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지구 공동체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던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맺었다. 195개 국가가 서명한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국제 협약이지만, 2017년 6월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망설임 없이 탈퇴했다. 그 이유는 이 협약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思考方式)이 어떻게 지구와 대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이는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구생태계 중요정보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구생태계파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연을 경시(輕視)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집단, 기업, 국가들은 각각의 이익만을 위해 지구 자원에 대하여 치열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지구 자원에 대한 쟁탈전은 생태계 파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인구 과잉,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의 멸종,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산성비, 핵물질에 의한 오염, 열대 우림의 벌채, 습지 파괴, 토양 침식, 사막화, 홍수, 기아, 호수와 하천과 강의 범람,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 연안과 강 하구의 오염, 산호초의 파괴, 기름 유출, 어류의 남획, 쓰레기 매립지의 확대, 유독성 폐기물, 살충제

와 제충제 남용에 의한 중독, 작업장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 도시의 과밀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sup>63)</sup> 등과 같은 환경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현재 지구 생태계는 인간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월, 브라질의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는 선거 캠페인 때마다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마존 우림 보호구역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을 고려해 개발을 대폭 허용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다. 2019년 7월, 아마존 보존구역 내 원주민지도자인 에미라 와이앙피이가 아마존지역 금 광산을 개발하려는 광부 50여명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숨졌다.<sup>64)</sup>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농경지 확장과 산림 훼손 등으로 이미 상당한 면적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보존되고 있던 열대우림조차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자들에게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아마존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4주간 지속되었다. 화재로 인해 축구장 420만개에 해당하는 2만9천944km<sup>2</sup>의 숲이 사라졌다.<sup>65)</sup>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우림(熱帶雨林)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라지는 중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화재가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sup>66)</sup> 수익이 좋은 커피 농사와 가축 방목을 위해 울창한 숲에 일부러 불을 내는 것이다. 인류사회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고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였던 광활한 아마존 숲이 하루밤새 잿더미가 되고, 다시 그 땅

---

63) 존 포스터(John Poster) 저, 조길영 옮김, 『환경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동쪽나라, 1996), pp.29-30. 재인용: 이기상, 『글로벌 생명학』 (서울: 자음과모음, 2010.), p.13.

64) 박효재,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리더, 무장 광부들에 피살…보우소나루 ‘그래도 개발’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4218>(검색일: 2019.8.2.).

65) 하채림, “브라질 환경장관 ‘아마존 화재감시원 증원 예산 확보 못 해’ ”, 「연합신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45100009?input=1195m>(검색일: 2019.9.9.).

66) 김명화, “아마존 누가 불질렀나…8월 한 달간 4만여 건 화재 발생”,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377398470>(검색일: 2019.9.11.).

은 커피원두 재배지와 목초지가 된다.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선택으로 인해 지금도 심각한 지경에 있는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것은 비단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숲을 불태우고 산을 파괴치는 원주민이나, 벌목업자나 굴착기 기사, 광부, 건축업자, 농부, 부동산업자들은 자신들이 숲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생계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과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야한다는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숲을 파괴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인류가 근대화·산업화로만 치닫는 과정에서 빚어낸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며, 산업화 이후 자연과 인간의 고립적 분리가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나타난 문명적 위기상황이기도 하다.

인간은 지구의 자원에 대해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사익(私益)과 탐욕(貪慾)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즉, 자연을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의 창고로만 여겨온 인간 중심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환경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야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일부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일회용품을 적게 쓰거나 채식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환경파괴를 막을 수 없다. “현재 생태 위기의 핵심은 구조에 있고, 그 구조는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계속 성장해야 한다.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이상주의자, 혁명가로 간주된다. 성장해서 이윤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 현대 경제는 안정을 위해 구조적으로 멈출 수 없는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성장이 흔들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한 다음 그걸 빨리 버리고 다시 구입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67) 오래 쓸 수 있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은 저하된다. 자본주의에서 경

---

67) 황경상, “환경파괴 주범은 자본주의…생태사회주의가 ‘출구’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6072139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6072139015)  
(검색일: 2019.10.16.).

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소비는 지속적으로 권장되며, 빗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고 부추긴다. 이전까지 다함께 공유하고 누리며 즐겼던 영역인 ‘물과 노래, 이야기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주고 사게 만든다.’<sup>68)</sup> 자본주의 체제 하의 중복 생산과 자원의 낭비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인류 사회의 생활양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지구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지구의 숲과 계곡, 산과 초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쉽게 값으로 매겨지고 소모된다. 극단적인 예로, 부유한 억만장자가 열대우림의 광대한 숲과 산을 사들였다고 생각해보자. 그 억만장자는 자신이 구매한 숲과 산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의 사유재산에 개입할 방법은 전무하다.

## 2) 낭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 속에 무한 소유를 부추기고 무한 소비를 조장하면서 욕망을 고무풍선처럼 한없이 키우고 있는 현대인에게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지구가 쓰레기통과 도살장으로 변해가고 있다.”<sup>69)</sup> 자원에 대한 무한한 소유와 소비는 낭비(浪費)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은 한정적인데 반해, 지금의 사회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욕망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끝없이 갈망하는 소비자’로 만들고 있다. 현대인들은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衣食住)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물질적 자원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원과 서비스 및 상품을 욕망한다. 새로 찾은 욕망 앞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소유물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지고 버려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生産)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용가치(使用價值) 즉 실질적 ‘사용(使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교환(交換) 및 거래(去來)를 위해서

68)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 정준형 옮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과주: 김영사, 2015), p.158.

69) 이기상, 『글로벌 생명학』(서울: 자음과모음, 2010.), p.180.

이루어진다. 한 마디로 생산자 및 기업가들의 본분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필요한 재화(財貨)를 생산(生産)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과 자본주의의 차이가 드러난다. 피터 드러커가 ‘고대 사회를 자본주의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up>70)</sup>고 말했듯이, 시장과 자본주의는 꽤나 다른 면모를 보인다. 시장은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자본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윤과 자본의 획득을 위해 존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상품이 이윤을 벌어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잉(過剩) 생산되면 그 상품을 폐기처분하기까지 한다. ‘농사(農事)는 풍년(豐年)인데 농심(農心)은 흉년(凶年)’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농산품의 경우 정부의 산지폐기(產地廢棄) 조치로 멸절된 과채류와 곡류들을 처분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지폐기로 땅에 묻힌 채소류 규모만 해도 37만 톤으로, 폐기비용만 450억 원에 이른다.<sup>71)</sup> ‘2017년 전남 영암군에서는 수확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해 시장격리 조치된 대봉감을 산지 폐기했다. 농민은 "빠 빠지게 농사지어 놓고 이렇게 몽겐디 기분 좋겠능가. 가슴이 미어터지오. 터져."라고 탄식했다. 풍년에는 풍악을 울려야하는데 이상하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사 풍년은 농민들에게 눈물을 안긴다.’<sup>72)</sup> 다양한 물질을 정성들여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 농부의 마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멸절된 생산물을 폐기처분(廢棄處分) 하는 행태는 농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유행이라는 이유로 쉽게 버려진다. 옷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자동차, 컴퓨터, 집과 가구 또한 다양한 이유로 주기적으로 버려진다. 낭비(浪費)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태도를 양산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생산이 소비를 뛰어넘는 풍요로운 경제에서는 공급을 제한해야만 이

70)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저, 이재규 옮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3), p.47.

71) 뉴스1, “ ‘배추밭 갈아엎기’ 악순환…비용만 450억 효과는 ‘별로’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7/95709613/1>(검색일: 2019.9.11.).

72) 연합뉴스, “[르포] 산지 폐기 마지막 날…'짓이겨진 대봉감에 농민은 가슴앓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8120651054>(검색일: 2019.11.11.).

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리오 휴버먼(Leo Huberman)은 자본주의의 계획이 “결핍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유 재산의 이익 때문에 사회의 이익은 모든 면에서 무력”<sup>73)</sup>해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본주의는 생산이 소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생산이 많으면 멸절된 음식과 물건을 버리거나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창고에 쌓아둬야 한다. 반대로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욕망하지도 않았을 법한 물건들을 욕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발적인 임금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필요(wants) 창출과 멸절된 생산품을 폐기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 내내 되풀이되어 왔다. ‘더 많은 물건을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주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sup>74)</sup>

---

73) 리오 휴버먼(Leo Huberman) 저,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서울: 책벌레, 2000), p.211.

74)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2』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p.171.

## IV.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 1. 경제 본연의 의미 실현을 위한 도덕관의 필요성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치열한 경쟁과 공동체의 와해, 삶의 터전인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전제와 그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과 탐욕을 기반으로 한 사익의 추구를 지속한다면 전 지구적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의 문제는 심화될 것이며, 결국 지구공동체의 공멸(共滅)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통한 사익추구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와 공공에 물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성품(性品)과 바른 인격(人格), 도덕(道德)과 윤리규범(倫理規範)과 같은 가치를 함양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현재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도덕과 인륜을 경시하고 금전(金錢)과 물질(物質)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왔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資質)과 품성을 기른 후에 적절한 사익(私益)과 이윤(利潤)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 공동선(共同善)을 저버리고, 금전(金錢)을 위해 자신 내면의 영성(靈性)과 양심(良心)을 무시하는 저급(低級)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에서 인간은 하늘을 대신하여 지상세계의 만물을 조화롭게 잘 운용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sup>75)</sup> 널리 이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만물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높은 도덕의식(道德意識)을 지향할 때 널리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천지대자연이 무궁(無窮)한 조화의 실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자연(大自然)의 이치에 따라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조화로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이치와 뜻을 살펴 사심(私心)이 아닌 공심(空心)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운용하려고 노력할 때 ‘경제’의 본래 의미인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苦難)에서 구제(救濟)한다’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실현시킬 수 있다.

---

75) 김광린, “홍익인간, 화랑도, 그리고 지구시민정신”, 선도문화 24권0호, (국학연구원, 2018), p.13.

아래에서부터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하다고 평가한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인류 사회에 빛나는 성인(聖人)으로 추앙받는 4대 성인들의 도덕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관한 심도 있는 성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애덤 스미스의 도덕관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공익을 실현한다.’라는 유명한 주장을 남겼다. 애덤 스미스는 사유재산에 기초한 경제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는 지역사회나 국가의 일반적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의 규제에 반대하거나 국가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애덤 스미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즉,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적 이기심과 탐욕을 긍정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이들은 애덤 스미스가 마치 인간의 사적 이익추구에 대한 온전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학설을 제시한 것처럼 그의 주장을 왜곡시켰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사익추구, 탐욕과 이기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제한 없는 이기심을 허용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 출판되기 전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서에 관해 고민하면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정의로운 도덕철학자로서 인간의 도덕감(道德感)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절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주의사회 혹은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개인의 올바른 도덕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은 이러한 도덕론 혹은 사회질서론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성립되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이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바라본 인간의 본성과 사회질서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도메 다쿠오(堂目卓生)는 다음과 같이 애덤 스미스의 기본사상을 파악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존재로서 파

악하여, 타인에 대해 동감하고 타인으로부터 동감 받는 것을 바라는 인간의 성질을 통해 시장경제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물론 인간에게는 이기심도 있다. 하지만 이기심이 동감에서 파생되는 정의감에 의해 제어될 때 비로소 시장경제는 사회에 질서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 개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기본사상이다.” 76)

애덤 스미스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따르는 사회질서는 인간의 감정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으로 그 사회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속하게 해준다고 여겼다. 그는 "인간은 이기적(selfish)이라고 하더라도 그 천성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77)고 생각했다. 개인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반대로 타인도 개인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각 개인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행동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를 동감(同感, sympathy)의 능력이라고 명명했다. 타인의 인정은 나를 기쁘게 하고, 부정은 나를 불쾌하게 한다. 당연히 개인은 타인의 부정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추구한다. 그러나 나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스미스는 타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각 개인은 마음속에 방관자 즉 ‘공평한 관찰자(supposed impartial spectator)’를 형성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마음속에 형성하고, 그 공평한 관찰자가 나의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고, 타인의 행동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에 충실하다면 개인에게 제한 없는 이기심은 허용될 수 없다. 제한 없는 이기심과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행위에 몰두하는 경우처럼 극단적인 경우 또한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그 행위가 아무리 이타적인 동기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이라고 볼 수 없다. 스미스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이 사회 질서에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해야만 한다고 했다.

76) 도메다쿠오(堂目卓生) 저, 우경봉 옮김,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서울: 도서출판동아시아, 2010), p.6.

77)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박세일·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2009), p.3.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개인의 무한한 이기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은 이미 그 자신의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와 도덕감이 전제된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인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논한 것이다. 또한 도메 다쿠오는 “조물주는 우리를 완전히 자애(自愛)의 망상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78)는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며 “무제한의 이기심이 방임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서 발현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기심과 자애심은 의무감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제어된다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다.” 79)고 덧붙였다. 『도덕감정론』을 번역한 박세일 또한 애덤 스미스가 결코 이기심(利己心), 사적 이익추구의 동기에 대한 예찬론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는 다만 그러한 동기의 강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동기가 일정한 경우, 즉 자유·공정 경쟁시장 하에서는 공익·공적 복지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자유·공적 경쟁시장을 전제하지 않는 이기심, 환언하면 사적 이윤추구 동기는 결코 사회적 선이 될 수 없다.” 80)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실은 애덤스미스가 말한 ‘동감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의와 도덕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즉 인간의 양심(良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이익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타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정의(正義)와 도덕(道德)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직시한다.

---

78)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박세일·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서울: 비봉출판사, 2009), pp.293-294.

79) 도메다쿠오(堂目卓生) 저, 우경봉 옮김,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서울: 도서출판동아시아, 2010), p.68.

80)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박세일·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서울: 비봉출판사, 2009), p.692.

## 2) 이기심을 경계한 인류 4대 성인(聖人)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고 자극하였으며, 이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 정치와 경제 등을 분업과 전문화, 능률(能率)이라는 이름으로 분리(分離)시키며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들 존재의 분리는 존재간의 단절(斷絶), 전통과 현대의 단절, 정신과 물질 혹은 마음과 사회의 단절로 이어졌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윤리관이 사라지고 물질만능, 배금주의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소외가 만연해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만 도덕관과 윤리관을 확립해서 현세에 바람직한 인간가치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이다.’<sup>81)</sup>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는 크게 도덕가치와 경제가치 두 가지가 있다. ‘도덕가치로는 사랑, 인(仁), 자비 등이 있으며, 경제가치는 자유와 평등가치로 나뉜다. 역사적으로 자유가치는 자본주의로 나타났고 평등가치는 공산주의로 나타났다.’<sup>82)</sup> 그러나 지금까지 도덕가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열편 논의를 통해 경제가치에 대한 고찰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여 도덕가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전만능의 관념이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인륜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과 인륜은 단지 종교인들의 설교,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른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도덕과 연관돼 있다”며, “삶의 도덕적 의미를 일깨워야만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sup>83)</sup>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의 재확립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말미에는 미덕과 공동선(共同善)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

81) 김연경 편저, 『한국 민족 정신 사상』 (서울: 글모아출판, 2019), p.19.

82) 이화영, “융합시대에 필요한 가치, 흥익” ,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10>(검색일: 2019.10.1).

83)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음,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서울: 레드우드, 2017), p.33.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고, 더불어 그런 문제를 성이나 낙태만이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이다.”<sup>84)</sup>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의 질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정의와 미덕을 고민했듯이, 인류의 4대 성인(聖人)으로 존경받는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및 그들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도덕, 인륜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반대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들을 남겼다.

『성경(聖經)』의 디모테전서 6장 9~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전하고 있다. "부(富)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sup>85)</sup>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은 탐욕 즉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경쟁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sup>86)</sup> 히브리서 13 장 5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sup>87)</sup>

『불경(佛經)』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심과 탐욕,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경고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Gautama Siddhartha, B.C. 563 ~ B.C. 483)가 스스로 설한 법문을 제자 법구(法句)가 엮어놓은 경전인 법구경(法句經)에서는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으로 제 몸을 묶어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 하지 않네. 탐욕이란 모든 것을 손상시키니 남을 해치고 또 스스로를 해친다."<sup>88)</sup>, "생각의 실타래가 얽히고

84)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경기도 파주: 김영사, 2010), p.362.

85)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 시편·잠언』 (서울: 신일기획문화(주), 1998), p.341.

86)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 시편·잠언』 (서울: 신일기획문화(주), 1998), p.8.

87)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 시편·잠언』 (서울: 신일기획문화(주), 1998), p.368.

꼬여 그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면 탐욕의 불길은 더욱 거세어진다. 그리고 이를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욕망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구속력도 더하게 된다."<sup>89)</sup>

중국의 공자(孔子, B.C. 551 ~ B.C. 479)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道理)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임을 역설하였으며, 탐욕을 경계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sup>90)</sup>라는 말을 남겼다. “ ‘극(克)’ 이란 이긴다는 것이고, ‘기(己)’ 란 몸에 있는 사욕을 말하며, ‘복(復)’ 이란 돌이킨다는 것이고, ‘예(禮)’ 란 천리(天理)의 도덕적 법칙[節文]이다. 사람의 충동은 예와 의로써 조정해야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예의로써 나날이 극복하는 길이 사람됨의 길[仁]이 되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충시키면 곧 도덕사회가 됨을 의미한다.”<sup>91)</sup> 공자는 극기복례를 통해 먼저 나만 사랑하고 아끼려는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자신의 욕심을 제압하고 그리고 늘 양심에 알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다.<sup>92)</sup>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B.C. 399) 또한 인간이 욕신의 욕망에 이끌려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물질적인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의 명언을 여럿 남겼다. "He is richest who is content with the least(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Having the fewest wants, I am nearest to the gods(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Bad men live that they may eat and drink, whereas good men eat and drink that they may live(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If a man is proud of his wealth, he should not be praised until it is known how he employs it(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인류의 성현(聖賢)들이 전해준 가르침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인

88) 법구 엮음, 한명숙 옮김, 『법구경』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p.285.

89) 불전간행회 편, 석지현 옮김, 『법구경』 (서울: 민족사, 1994), p.188.

90)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논어』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p.132.

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극기복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0530&cid=46649&categoryId=46649> (검색일: 2019.9.4).

92) 윤홍식 저, 『인성교육, 인문학에서 답을 얻다』 (서울: 봉황동래, 2016), p.87.

륜과 도덕의 소중한 지침서(指針書)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이 활동한 시대나 지역은 다르지만, 이들 4대 성인은 모두 탐욕과 이기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간이 개인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精誠)과 믿음, 사랑(愛)과 지혜(知慧), 자비(慈悲)와 구제(救濟), 평화(平和)가 그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집으로 개인과 사회, 인류공동체는 항구적(恒久的)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이기심을 허용하고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경쟁을 일삼게 함으로써 성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홍익인간사상이 제시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과 4대성인 및 성현(聖賢)들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동일하다. 홍익인간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개인과 사회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참전계경(參仝戒經)』의 222사 간륜(間倫)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온당치 않은 욕심으로 인간이 윤리와 멀어지는 것을 재앙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늘의 이치<sup>9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부처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세워진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이념이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어 기원전 108년까지 동아시아의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한민족의 나라였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었던 홍익인간사상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혹은 366사)의 경전을 통해 한민족에게 면면히 전승되어졌다. 특히, 참전계경에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강령인 성(誠), 신(信), 애(愛), 제(濟), 화(禍), 복(福), 보(報), 응(應)을 366가지로 나누어 체계적인 가르침을 기록했다. 정성과 믿음, 사랑과 자비라는 미덕의 강령은 모든 종교와 도덕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공통분모이다. 이처럼 홍익인간사상과 성인들의 가르침은 인간사회를 공통된 목적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홍익인간사상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

93) 최동환, 『366사 참전계경』 (서울: 지혜의나무, 2007), p.402.

### 3) 상실된 도덕과 확산되고 있는 이기심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자유경쟁체제, 신자유주의 등으로 지칭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선택의 자유를 뜻한다.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에 의한 악덕(惡德)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이타심과 선행, 미덕(美德),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결과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허영심(虛榮心)과 위선(僞善)에 가까운 이기심과 탐욕의 길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다. 반면 세간의 평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sup>94)</sup> 세간의 평가에 온 신경을 쏟으며 부의 축적과 이윤 추구에 몰입한 나약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뜻하지도 않게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인명사고 중 삼풍백화점붕괴 대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삼풍백화점붕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502명의 사망자, 900여 명의 부상자, 실종 6명이 발생한 대참사였다.<sup>95)</sup>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은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경영진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주된 원인이었다.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부실시공을 감행하고, 무리한 용도변경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뇌물들이 묵인되었으며, 건물붕괴 당일 재앙을 알리는 징조를 수차례 목격하고도 경영진들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손님들을 대피시키면 백화점 이미지가 나빠지고, 백화점의 이익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던 삼풍건설그룹 회장 이준은 사건 관련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보쇼 기자양반!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재산과 자

---

94) 조현수, 『이기적인 개인 공감하는 도덕』 (서울: 사람의무늬, 2016), pp.161-166.

95) 홍성태,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리-사고사회”, 『경제와 사회』 108, 비판사회학회, (2015), p.231.

본, 이윤에 과도하게 몰입한 인간이 공동체이웃의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를 이루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승선자 476명 중 295명이 희생됐고 9명<sup>96)</sup>은 실종됐다. 세월호침몰사고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마찬가지로 안전 대신 이윤을 택한 경영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원인이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한 무리한 선체 증축, 화물과적 및 고박불량,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왜 세월호는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해 무리하게 선체를 증축하고, 왜 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화물 보다 더 많은 양을 싣고 출항했을까? 한 번의 운행으로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승객의 안전을 경시한 것이다. 만약 세월호에 선박회사 경영진 자신들과 가족들이 탑승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무책임한 증축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운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경영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타는 배가 아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태우는 배였다.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타인을 싣는 배였다.

박이문은 이타주의가 개인의 좁은 세계를 사회와 자연과 우주로 확장하는 영역이자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타주의는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좁은 세계를 사회와 자연과 우주로 확장하여 단 하나인 우주와 화해하고 개체로서의 삶의 허망함과 우주적 허무주의를 극복하여 개체로서의 의미와 우주 전체로서의 의미 즉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려는 궁극적 영역이며 방법이다.”<sup>97)</sup> 자본주의는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구성원간의 경쟁을 전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탐욕과 이기심에서 배태된 의식수준은 분리와 분별의식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은 한없이 축소된다. 이타주의가 크고 넓은 자아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기심을 전제한 자본주의 경제는 반대로 인간의 좁은 자아의식에 기반하고 있거나 혹은 인간의 자아의식을 축소시키고 있음에 분명하다. 언제부터인가 우주를 비롯한 대자연

---

96) 정한울, “세월호 참사 1주기 진단: 저신뢰 넘어 불신사회 진입 기로”, 『EAI 오피니언 리뷰』,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15.4), p.1.

97) 박이문, 『왜 인간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경기도 고양시: 소나무, 2014), p.81.

과 하나 된 광활한 인간의 자아의식이 차츰 인종, 국가, 민족, 지역, 자신이 속한 조직, 가문과 가족, 자기 자신으로 축소되어졌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이 땅을 어머니로 하늘을 아버지로 여기던 드넓은 자아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인들의 자아의식은 좁고 편협하여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늘과 땅이라는 진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가르쳤다.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 우리는 그들의 자식이다.”<sup>98)</sup> 현대인들은 탐욕과 이기심의 문제로 한 없이 축소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가 고통 받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아의식을 축소시키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의 이타심과 선한 본성, 인간의 협동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과 조화롭게 잘 살아가려는 마음,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생각의 큰 자아의식, 성현들의 도덕과 윤리를 전제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을까?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 2. 홍익인간사상에 기초한 경제 이념의 이해

### 1) 이기심을 극복하는 홍익경제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는 곧 탐욕과 이기심을 전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륜과 윤리·도덕의 한계를 의미한다.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은 물질만능주의·금전만능주의를 배태하고, 곧 사회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였으며, 인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자연은 곧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륜과 도덕을 배우는 것보다 사회에 전제되어 운용되는 이기심과 탐욕, 그로 인한 경쟁을 먼저 습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이기심,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탐욕, 자기가 속한 기업과 국가만을 위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인류 사회는 밝고 올바른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정모는 홍익인간사상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홍

---

98) 시애틀 추장 외, 서울택 엮음, 『맨 처음 씨앗의 마음』 (파주: 들녘, 2002), p.71.

익국부론』을 집필하였으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을 축소시키고 활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sup>99)</sup>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자본주의는 얼핏 보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탐욕과 이기심의 조장, 경쟁의 확대, 그로 인한 공동체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은 인간 내면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홍익국부론』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현대경제학의 철학과 사고의 틀을 인정한 채로 홍익인간사상을 축소시켜 부(富)를 벌어들이는 경제성장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과 다르지 않다. 홍익인간사상은 이기심과 탐욕이 허용되고 조장하는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큰 자아의식, 이타심과 홍익심(弘益心), 육(肉)과 영(靈)의 조화를 토대로 근본적인 이념과 사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이기심이 전제된 바탕에서 홍익인간사상이 하나의 요령이 될 수는 있어도 대안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세계와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에 대해 다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편협성과 독단성을 배척하며,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관용·포용의 덕으로 통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독선·독점 같은 반공동체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실과 화합·공존의 윤리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사회성원 개개인들에게 타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타주의적 삶을 추구한다.”<sup>100)</sup> 이처럼 홍익인간사상에 담긴 큰 뜻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독제로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들의 관념과 의식의 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는 홍익인간사상의 우주공동체 세계관과 성통공완적 인간관에 의거(依據)하여 크게 ‘자아의식의 확장’과 ‘인간본연의 존재목적’에 대한 깨달음, 모든 종교의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즉 ‘홍익심(弘益心)의 실천’이라고 요약된다.

99) 강정모, 『홍익국부론』 (서울: 을곡출판사, 2016), p.143.

100) 유경문,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고조선단군학 (2) (서울: 고조선단군학회, 2000), p.235.

첫째,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타인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 즉 큰 자아의식에서부터 생겨나야한다. 홍익인간사상은 우주 만물에 이로운 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一)’라는 관념을 강조했다. 즉, 타인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하늘(天)과 사람(人)과 만물(物)을 하나로 관통하는 ‘한’ 사상(삼신사상)의 전형”<sup>101)</sup>인 『366사·참전계경』의 345사영(盈)에서는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도 말며, 내가 좋은 것은 남에게 베풀어줘야 한다.’는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나와 남을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남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개념은 홍익인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sup>102)</sup> 『366사·참전계경』 98사 유아(推我)에서도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 즉 모든 일은 나를 비추어 보아 남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推我者는 推人如我也라. 我寒熱이면 人亦寒熱이며 我飢餓면 人亦飢餓하고 我無奈면 人亦無奈니라.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춥고 더우면 남도 역시 춥고 더우며 내가 배고프면 남도 역시 배가 고픈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남도 역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sup>103)</sup>

유가(儒家)철학을 담고 있는 『대학(大學)』의 마지막장에도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서 헤아려 보는 도(道)”인 ‘헐구지도(絜矩之道)’를 찾아볼 수 있다.

“所惡於上毋以使下 所惡於下毋以事上 所惡於右毋以交於左 所惡於左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자신이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윗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윗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앞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도록 시키지 말며 자신이 앞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뒷사람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라. 또 자신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자신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게서 본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른쪽과 사귀

101) 최민자, 『새로운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p.76.

102) 최동환, 『366사 참전계경』 (서울: 지혜의나무, 2007), p.491.

103) 위의 책. p.307.

지 말라. 이것이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서 헤아려 보는 도’의 의미이다.)” 104)

놀랍게도 이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근본 원리인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교훈의 황금률(黃金律)과도 동일하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05)라고 적시되어 있다.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여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대학에서는 ‘남에게서 받은 좋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만 다를 뿐 본질적 의미는 같은 것이다.

아울러,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말한 동감과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또한 인간의 양심 혹은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을 통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말한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상대 또한 상대의 양심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다.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 자체만으로도 인간이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헤아림의 능력이 타인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인류 사회에 전제된다면 이기심과 탐욕으로 구성된 지금의 자본주의적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의 숭고한 평화철학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해당한다.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역지사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 자신의 마음을 거울삼아 헤아려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민족은 대자연을 천지부모(天地父母)라고 일컫는다. 천지부모를 경시하고서 자식의 입장에 서있는 인간이 온전할 수 없다. 천지부모의 평화로움, 대자연이 균형을 맞춰 평화로워야 인류의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의 균형도 깨질 수밖에 없다. ‘자연은 인간에게 속해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자연에 속해있는 것’ 106)이다. 인류는 절대적으로

---

104) 주희(朱熹) 엮음, 김미영 옮김, 『대학·중용』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p.99.

105)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 시편·잠언』 (서울: 신일기획문화(주), 1998), p.10.

106)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저, 이한음 옮김, 『지구의 절반』 (서울:

자연과 상호의존하고 있다.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익인간사상에 근거한 생명적 통찰을 통해 자연과 생명체 하나하나에도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능력인 ‘헤아림의 도(道)’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상세계(地上世界)에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인간 본연(本然)의 목적(目的)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홍익인간사상의 성통공완(性通功完) 인간관의 정립(定立)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작가 장 브뤼레르(Jean Bruller, 1902~1991)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sup>107)</sup>라고 말했다.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다윈의 진화론(Darwin's theory of evolution)처럼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진화하지 않았다. 결코 짐승과 같이 욕구(慾求)와 본능(本能)만을 가지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갇힌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지상세계를 다스릴 온전한 능력인 성명정(性命精)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다스림은 하늘과 같은 평화와 조화로움에 근거해야 한다. “사람에게 우주운행의 근본원리인 '하나'의 품성과 속성이 온전히 내재해 있는바, 사람은 이를 깨달아 진리와의 합일을 실현하고(성통, 性通), 깨달음의 실천적 차원으로서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해 나가는(공완, 功完) 평화구현의 책임자이자 주체적 존재이다.”<sup>108)</sup> 이러한 인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은 본성과 심성을 바르게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하며, 못 세계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릴 실력을 쌓아 자신과 타인을 아우르는 생명세계를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본래의 의미인 경제제민(經世濟民)을 실현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모두로, 민족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이다.<sup>109)</sup> 또한 “인류 공동의 문제인 질병, 빈곤, 인종차별, 환경파괴 등에 대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 대처를 하는

---

(주)사이언스북스, 2017), p.35.

107) 위의 책. p.78.

108) 김광린, “홍익인간, 화랑도, 그리고 지구시민정신”, 선도문화 24권0호, (국학연구원, 2018), p.13.

109) 최민자, 『빅히스토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p.10.

것” 110)이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의 일환으로서 ‘지구공동체 의식’ 111)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인류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우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라는 생명생태계를 위한 윤리도덕적 공무원(公務員)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군인과 관료, 경찰 등의 공무원만이 공공(公共)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대중은 각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私人)일뿐이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 본연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자아의식을 널리 확장하여 나와 남을 이롭게 함은 물론이고, 사회와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과 기쁨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에서는 인간의 기쁨의 근원을 하늘로부터 받은 본바탕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 “원희(原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바탕이다. 원래 인간은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 인간이 이 하늘의 이치에 역행하여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즉 외롭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천해진다.” 112)

홍익인간사상이 전제된 사회에서 택시기사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온다. 과학자와 연구원은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온다. 음식점에서 그릇을 닦는 종업원들도 자신이 깨끗이 닦은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정성스럽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도 공동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면의 차오르는 보람과 기쁨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청소부, 버스기사와 상인들, 제조업자, 유통업자, 서비스업 등 일하는 자들 모두가 남을 나와 같이 여기며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사상의 경제관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류의 성현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른 도덕과 밝은 심성이 반영된 이상세계에 대한

---

110) 지은람·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29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7), p.121.

111) 위의 논문. p.121.

112) 최동환, 『366사 참전계경』 (서울: 지혜의나무, 2007), p.319.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가 천성적(天性的)으로 부여받은 재능(才能)과 소질(素質)을 계발하여, 그 재능을 공동체와 사회, 자연을 살리는데 쓰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홍익심(弘益心),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마음인 사랑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근거한 넓고 높은 자아의식을 함양한 국가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역,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류사회와 지구행성의 모든 생명공영(生命共榮)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서로가 협력하여 넘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 지구적 재난과 재앙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힘과 권력을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정의와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조소앙(趙素昂) 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에 근거한 세계일가(世界一家)를 이루는 핵심 원리일 것이다. 삼균주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均等)을 통해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up>113)</sup>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인 홍익심(弘益心)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경쟁의 차원에서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이 전제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고, 우리 모두의 사회에 이바지하며, 인류공영(人類共榮)에 힘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은 더 나아가 직업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에도 널리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만의 부모가 아닌 사회의 부모가 될 수 있다. 사회의 아버지가 되고, 사회의 어머니가 되어 모든 아이들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고 돌보는 마음이 공동체에 자리 잡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입장에서조차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이 부모가 아닌 사회의 자식이 되어 사회의 어른들을 부모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아이, 나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경지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나라라고 일컫지 않고 우리나라라고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의 부모, 나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라고 말하는 한민족의 내재적 관념의 발현도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

113) 김삼웅 지음, 『조소앙 평전』 (서울: 채륜, 2017), p.8.

자본주의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이 갖는 인간에 대한 관점, 이기심과 이타심 중 무엇을 전제하느냐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인(動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치이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자아의식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작은 가치체계가 아닌 우리 모두와 지구라는 큰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는 때, 그보다 작은 가치들의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구분에 의한 모든 갈등과 적대감이 사라질 것이다.”<sup>114)</sup>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갈 이념과 사상은 인간의 본성(本性) 내지 심성(心性)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 2) 신(新) 패러다임의 태동

전 지구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의 함양”<sup>115)</sup>은 앞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계시민(世界市民, world citizen)의 덕목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의 덕목의 함양은 지금의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낳은 이기심, 탐욕, 분리와 분별, 물질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지평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대사회를 장악한 관념과 의식구조는 어떠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 “현재 인류에게 인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을 위해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에 근거한 보편타당한 세계관, 지구관, 우주관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sup>116)</sup>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성과 영혼, 내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amon Hawkins) 박사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해 연구

114) 이승현, 『숨쉬는 평화학』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2002), p.162.

115) 변중현,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2권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p.66.

116) 고병진, “지구와 우주에 관한 인식을 바꾸자”,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16>(검색일: 2019.11.15).

를 진행하고 인간의 의식 단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보였다.<sup>117)</sup> “200 이하의 수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삶의 태도는 ‘살아남기’이다.”<sup>118)</sup> 호킨스 박사는 200 이하의 점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Force energy)로 규정했다. 용기와 긍정, 희망을 뜻하는 200 이상의 점수부터 1,000에 이르는 점수까지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Power energy)로 바라봤다. 만약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현상들을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단계(혹은 의식의 지도)’에 대입해보면 과연 어떠한 레벨로 측정될지 추측해본다. 사랑/존경/공존/이해/통찰/용서와 같은 파워에너지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할 수 없지만 현 자본주의는 욕망/갈망/집착/두려움 따위의 포스에너지에 가깝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파워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심성(心誠)과 영성(靈性)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까지도 심성과 영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이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분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세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온 몸으로 체감(體感)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이 지속되면 엄청난 환난(患難)과 파국(破局)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익을 추구하고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질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데이비드 봄(David Joseph Bohm)의 양자이론이 의학과 의료계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양자의학(量子醫學)’에서 사람은 몸(입자적 구조)과 마음(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의 질병 원인을 몸에서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찾아내 치료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적 차원을 무시하고 인간을 육체적 존재로만 취급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도된 것이었다.<sup>119)</sup> 의료계뿐만 아니

---

117)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amon Hawkins) 지음, 이종수 옮김, 『의식혁명』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1997), p.63.

118)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amon Hawkins) 지음, 이종수 옮김, 『의식혁명』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1997), p.64.

119) 강길전·홍달수 지음,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서울: 돌출새김, 2013), p.172.

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심성, 내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보면,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은 “현재 돈, 에너지, 교육, 건강, 물, 토양, 기후, 정치, 환경 등 수많은 분야에 닥친 위기들은 곧 우리를 낡은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밀어내는 탄생의 전환점이 될 것”<sup>120)</sup>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물의 상호관계성과 고유성이 구현되는 신성한 화폐시스템과 신성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금의 화폐시스템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사유화될 수 없는 모든 공공자산을 파괴해왔고 또 계속 파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빛 공해 없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 도로의 소음 없이 평화로운 시골, 활기찬 다문화 지역경제, 오염되지 않은 강과 호수와 바다, 문명의 생태적 기반 등,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기여할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것에 기여한다고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는 돈은 결국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일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돈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장려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도 없애줄 것이다.” 지금의 돈은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제거해,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보편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 당사자’들로 바뀌놓는다. 오로지 물질적 거래와 이익이 통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기는 우정과 충족감, 자신이 타인에게 기여하였다는 보람과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다.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경제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우리의 경제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졌다”<sup>121)</sup>며, 일정한 도덕적 지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지성은 반드시 인간의 마음과 심성에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큰 양대 가치인 경제와 도덕 중에서 우리는 오로지 경제가치에만 집중해왔는지도 모른다.

최민자는 “현대의 과학이 인간 존재의 세 중심축-종교와 과학과 인문, 즉

---

120)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 정준형 옮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파주: 김영사, 2015), p.14.

121) 로버트 L. 하일브로너(Robert L. Heilbroner) · 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 저, 홍기빈 옮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서울: 도서출판미지북스, 2010), pp.521-522.

신과 세계와 영혼의 세 영역(天地人 三才)-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우주만물의 전일성을 자각하지 못할뿐더러, 생명현상을 분리된 개체나 종(種)의 차원에서 인식함으로써 단순한 물리 현상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122)</sup>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과학혁명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리(物理)와 성리(性理),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통섭하는 보편적인 지식체계 구축의 과제이다. 둘째,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의 정립의 과제이다. 이는 곧 이원론의 유산 극복과 관련된 것이다. 일체의 이원론의 뿌리는 생명의 순환에 대한 물이해에 있다. 셋째, 존재혁명의 과제이다. 과학혁명의 특성이 과학과 의식의 접합에 있으므로 과학혁명과 의식혁명이 상관관계에 있고, 또한 의식과 존재가 상호 조응관계에 있으므로 의식혁명은 곧 존재혁명이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인간의 심성과 마음에 근본가치를 두고 내·외면의 조화로운 풍요를 지향한다. 본인은 이것을 홍익심(弘益心)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처럼 다른 것의 파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이익이 되고, 생태계를 파괴시켜야만 이익이 되는 것은 홍익인간사상과 거리가 멀다. 모든 대상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생명을 쓸모와 쓸모없음으로 나누고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만물을 구분하고 분리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만물의 조화로우움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역시 무조건적인 악덕도 아니며, 우주의 생명 순환 원리에 완벽히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 발생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정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 자본주의는 명백하게 전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념구조이자 의식의 틀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그 무엇보다 막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홍익인간사상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 곤충과 동물의 비극이 결국 나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에 각자의 존재와 역할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대자연의 순환의 과정에 있음을 가리킨다. 홍익인간사상이 녹아든 정치·경제관념에서는 ‘인간이 대아(大我)를 위해서 일하게 된

---

122) 최민자, 『새로운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pp.56-60.

다. 선악(善惡)의 분기점이 대아와 소아의 분기(分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은 자신도 해치는 일임' 123)을 깨닫는 것이다. 아울러 숲을 바르게 기름으로써 숲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이고, 인간의 양식이 되는 가축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며, 나의 이익이 곧 상대의 이익, 한 민족의 이익이 다른 민족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익이 지구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만물을 풍요롭게 하면서 인간이 그 풍요를 함께 누린다는 것이야말로 우주적 질서에 순응(順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의 한계(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과 이념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123) 권태훈, 『봉우일기 1』 (서울: 정신세계사, 1998), p.246.

## 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목적은 한민족의 건국이념이자 중심사상인 홍익인간사상(弘益人間思想)의 관점에서 현대의 지배적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윤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근본적인 모순에 관하여 홍익인간사상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5년 1월 대한민국에서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최초의 법인 인성교육진흥법’<sup>124)</sup>이 공포되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할 정도로 개인의 마비된 인성과 매마른 공동체 의식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무수한 예들 중에서도 세월호참사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참사였다. 참사의 근본 원인이 상하를 막론한 심각한 비인간성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혹은 신자유주의의 주류경제학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관점에 따라 이기적인 인간들끼리의 경쟁 또한 당연하게 여긴다. 이는 사회적 부와 자본의 확대 즉 물질적 이익과 성장을 위해 탐욕과 경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로써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경제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다. 현대인들에게 경제라는 것이 단지 돈을 벌거나 잃는 그러한 일련의 경험 혹은 과정으로만 여겨지기도 한다. 지금의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기심과 사익추구가 과열되어 심각한 경쟁사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를 다방면으로 약화시키고, 미래의 평화까지도 위협한다. 특히 인성과 필수적으로 함께 다뤄지는 인륜과 도덕은 부차적이고 소홀한 것으로 다뤄지게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인간성을 기르지 못한 채 자본주의라는 사익추구와 경쟁의 장에 임한 결과 우리 사회

---

124) 시사상식사전, “인성교육진흥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505&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9.9.19.).

는 금전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병들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 알려주듯이 탐욕적인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인성교육이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기심과 사익추구에 따른 경쟁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은 단지 명목상의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에 전제된 인간관, 이기심과 이타심 중 무엇을 전제하느냐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사상에서 인간은 하늘(天)의 품성을 물려받은 신성(神聖)한 존재로 성통공완(性通功完)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의 주체적 존재이다. 이러한 홍익인간사상적 인간관은 지금의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인간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한다. 우리 경제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과 전제를 유지한 채로 수많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비인간성과 비정함의 극치에 이른 사회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류문화의 범위는 개인적으로부터 가족, 가족적으로부터 부락, 부락으로부터 국가, 국가적으로부터 세계, 세계적으로부터 우주주의에 이르도록 순차로 진보한다.”<sup>125)</sup>는 말을 되새겨볼 때 홍익인간사상을 근본으로 삼게 되는 경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사회, 보다 큰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경제 본래의 의미 ‘경세제민(經世濟民)’을 회복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것에서부터 우주공동체까지 나아가는 정상적인 진보의 단계, 즉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體現)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적 흐름에서 자본주의 역시 무조건적인 악덕도 아니며, 우주의 생명 순환 원리에 완벽히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 발생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정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조금 더 관심 갖고

---

125) 최익현 외 지음, 이주명 편역, 『원문 사료로 읽는 한국 근대사』(서울: 필맥, 2014), p.167.

고찰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현 자본주의는 전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념 구조이자 의식의 틀이며, 이러한 자본주의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그 무엇보다 막대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자본주의는 충분히 연구대상이다.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논의가 깊이 진행될 때 인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홍익인간사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홍익인간사상이 내포하는 크고 다양한 가치 중 성통공완적 인간관과 우주공동체 세계관만을 조명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한 한계로 인해 본문에서 말한 홍익인간사상적 대안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조화상생의 철학을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익인간사상은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이원성과 분리성을 극복된 합일성(合一性)으로 대체할 수 있는 힘이며, 각 개인의 파편화 된 의식과 관념을 우주만물의 전일성(全一性)으로 연결시키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인간의 영성과 신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현대과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곧 지금의 과학이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차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축소되고 왜곡된 현대인들의 자아의식의 지평을 바로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탐욕과 이기심, 치열한 경쟁의식, 전 지구적 생태파괴로 위협에 처한 인류세계의 패러다임을 마음과 생명, 물질의 조화로움이 중요시되는 ‘정신문명(精神文明)’<sup>126)</sup>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우주만물이 각기 외로이 존재하는 것 하나 없이 인연과 자연 하나하나가 홍익인간사상에서 말하는 ‘하나(一)’의 차원으로 융합되어 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126) 권태훈, 『봉우일기 2』 (서울: 정신세계사, 1998), p.200.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강길전 · 홍달수,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서울: 돌출새김, 2013.

강신주, 『철학 VS 철학』, 서울: 도서출판 오월의봄, 2016.

강정모, 『홍익국부론』, 서울: 율곡출판사, 2016.

계연수 · 이유립 저,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3.

공자(孔子), 김형찬 옮김, 『논어』,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권태훈, 『봉우일기 1』, 서울: 정신세계사, 1998.

\_\_\_\_\_, 『봉우일기 2』, 서울: 정신세계사, 1998.

김삼웅, 『조소앙 평전』, 서울: 채륜, 2017.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 서울: 동방의 빛, 2010.

김수행, 『세계대공황』, 경기도 파주: 돌베개, 2011.

김연경, 『한국 민족 정신 사상』, 서울: 글모아출판, 2019.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 시편 · 잠언』, 서울: 신일기획문화(주), 1998.

박상은, 『홍익인간과 평화 DNA』, 서울: 이미지북, 2017.

박세길, 『자본주의, 그 이후』, 파주: 돌베개, 2012.

박찬희, 『지구촌 인류를 구제할 법칙:홍익인간사상』, 서울: 보경문화사, 2006.

박이문, 『왜 인간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경기도 고양시: 소나무, 2014.

법구 엮음, 한명숙 옮김, 『법구경』,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 불전간행회 편, 석지현 옮김, 『법구경』, 서울: 민족사, 1994.
- 유경문,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개조 방향』, 서울: 해남, 2015.
- 윤홍식, 『인성교육, 인문학에서 답을 얻다』, 서울: 봉황동래, 2016.
- 이기상, 『글로벌 생명학』, 서울: 자음과모음, 2010.
-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서울: 레드우드, 2017.
- 이승현,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2018.
- \_\_\_\_\_, 『숨쉬는 평화학』,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2002.
- 일연(一然), 미리내공방 엮음,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국유사』, 서울: 정민미디어, 2018.
- 장동익, 『덕 윤리』, 서울: 씨아이알, 2017.
- 조현수, 『이기적인 개인 공감하는 도덕』, 서울: 사람의무늬, 2016.
- 주희(朱熹) 엮음, 김미영 옮김, 『대학·중용』, 서울: (주)홍익출판사, 1999.
- 채사장,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서울: 한빛비즈(주), 2014.
- 최민자, 『새로운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 \_\_\_\_\_, 『빅 히스토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 \_\_\_\_\_, 『무엇이 21세기를 지배하는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 최동환, 『366사 참전계경』, 서울: 지혜의나무, 2007.
- 최은수, 『넥스트 패러다임』, 서울: (주)이미디어그룹, 2012.
- 최익현 외 지음, 이주명 편역, 『원문 사료로 읽는 한국 근대사』, 서울: 필맥, 2014.
- 가브리엘 콜코(Gabriel Morris Kolko) 저, 지소철 역, 『제국의 몰락』, 서울:

비아북, 2009.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 저, 홍화옥 역,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서울: IVP, 2003.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저, 이종인 역,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2』, 서울: 시대의창, 2005.

다니엘 튜더(Daniel Tudor) 저, 노정태 옮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광주: (주)문학동네, 2013.

데이비드 보일(David Courtney Boyle)·앤드류 심슨(Andrew Simpson) 저, 조균현 옮김, 『이기적 경제학 이타적 경제학』, 서울: 사군자, 2012.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amon Hawkins) 저, 이종수 역, 『의식혁명』,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1997.

도메 다쿠오(堂目卓生) 저, 우경봉 역,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0.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 저, 홍기빈 역,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2010.

레이먼드 W. 베이커(Raymond W. Baker) 저, 강혜정 역,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서울: 지식의숲, 2007.

리오 휴버먼(Leo Huberman) 저,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서울: 책벌레, 2000.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안기순 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서울: (주)미래엔, 2012.

\_\_\_\_\_,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경기도 파주: 김영사, 2010.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저, 심준보·변동열 역,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서울: (주)청어람미디어, 2007.

- 시애틀 주장 외, 서울택 엮음, 『맨 처음 씨앗의 마음』, 파주: 들녘, 2002.
-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저, 김수행 역, 『국부론 (상)』, 서울: 비봉출판사, 2011.
- 
- \_\_\_\_\_,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2009.
-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 지음, 양길현·변종현 옮김,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4.
-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저, 이한음 옮김, 『지구의 절반』, 서울: (주) 사이언스북스, 2017.
- 존 포스터(John Poster) 저, 조길영 옮김, 『환경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서울: 동쪽나라, 1996.
- 짐 월리스(Jim Wallis) 저, 박세혁 역, 『가치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1.
-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 정준형 옮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파주: 김영사, 2015.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상)』, 서울: 비봉출판사, 2017.
-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저, 이재규 옮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 2. 논문

- 강신준, “자본주의의 유효기간에 대한 묵시록.” 『지식의지평』 Vol.- No.22 (2017).
- 강연희, “전 지구적 생태 파괴에 대응하는 여성신학적 생명 살림.”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광린, “홍익인간, 화랑도, 그리고 지구시민정신” 『선도문화』 24권 0호 (2018).

\_\_\_\_\_,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평화학논총』 제7권 2호 (2017).

\_\_\_\_\_, “‘한(하나, 一)’과 한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홍익인간” 『평화학논총』, 제5권 1호 (2015).

\_\_\_\_\_, “한중일 삼국의 천손문화와 평화사상” 『선도문화』, 제11권, (2011).

김완구, “자본주의 소비문화에서 비롯한 생태위기 억제와 극복을 위한 ‘자발적 소박함’의 덕.” 『환경철학』 Vol.24 (2017).

김용민,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생태사회” 『유럽사회문화』 Vol.1 No.- (2008).

류재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금해,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변종현,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2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송재근, 『한민족 통일의 평화학적 접근-홍익인간사상의 평화비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94.

오성주, “21세기 위기사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7집, 13-49, (2017).

유경문,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고조선단군학 제2호, 서울: 고조선단군학회, (2000).

윤인진, “민족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족연구』 Vol.0 No.50 (2012).

- 이오갑, “칼뱅에 따른 돈과 재화”,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40 권 40 호 (2014).
- 이용수, 『조화로운 가족공동체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이미림, “유교, 공감과 소통의 경제학: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과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 권 3 호 (2017).
- 임일섭, “애덤 스미스 구하기: 좋은 목적, 나쁜 방법” 『경상논총』 제 35 권 1 호 (2017).
- 장효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과 가치 합리성” 『동서철학연구』 제 87 권 (2018).
-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의 경제학: 홍익경제론 서설” 고조선단군학 36 권 36 호, 서울: 고조선단군학회 (2017).
- 정한울, “세월호 참사 1주기 진단: 저신뢰 넘어 불신사회 진입 기로”, 『EAI 오피니언 리뷰』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15.4).
- 조명래, “우리헌법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연구 : 홍익인본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 조영재,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도덕성 상실과 회복에 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지은림·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29 권 4 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7).
- 홍성태,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리-사고사회”, 『경제와 사회』 108, 비판사회학회, (2015).

### 3. 웹사이트

고병진, “지구와 우주에 관한 인식을 바꾸자”, 코리안스피릿,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16>(검색일:  
2019.11.15).

김동환, “홍익인간. 접화군생은 지고지선의 인류애”,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69> (검색일:  
2019.7.10.).

김명화, “아마존 누가 불질렀나...8월 한 달간 4만여 건 화재 발생”,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377398470>  
(검색일: 2019.9.11.).

네이버 국어사전, “헬조선”,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7%AC%EC%A1%B0%EC%84%A0&range=all)  
[D%97%AC%EC%A1%B0%EC%84%A0&range=all](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7%AC%EC%A1%B0%EC%84%A0&range=all) (검색일: 2019.9.10.).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https://terms.naver.com/](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18416&cid=42074&categoryId=42074)  
[entry.nhn?docId=1518416&cid=42074&categoryId=4207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18416&cid=42074&categoryId=42074) (검색일: 2019.11.9  
.).

뉴스1, “‘배추밭 갈아엎기’ 악순환...비용만 450억 효과는 ‘별로’”, 동아  
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7/95709613/1> (검색  
일: 2019.9.11.).

두산백과,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https://terms.naver.com/en](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18)  
[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18](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18) (검색일: 2019.7.19.).

박상훈, “자살률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2위...60대 이상 자살률은 1위”,  
인터뷰365,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9](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97)  
[7](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97) (검색일: 2019.8.13.).

박효재,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리더, 무장 광부들에 피살...보우소나루 ‘그  
래도 개발’”,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421](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4218)  
[8](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4218) (검색일: 2019.8.2.).

서종철, “[사필귀정] 모두에게 좋은 것”,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http://news.imaeil.com/NewestAll/2013060610375930247)  
[/NewestAll/2013060610375930247](http://news.imaeil.com/NewestAll/2013060610375930247) (검색일: 2019.8.3.).

시사상식사전, “인성교육진흥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505&cid=43667&categoryId=>

43667(검색일: 2019.9.19.).

이을형, “ ‘버려야 산다’ …유물 · 유적가공 중 · 일 역사왜곡”,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900](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900) (검색일: 2019.8.1.).

이재준, “[이재준칼럼]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중부일보, <http://www.j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842> (검색일: 2019.8.15.).

이화영, “융합시대에 필요한 가치, 흥익”, 코리안스피릿,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10> (검색일: 2019.10.1.).

자유경제원, “이기심과 이타심…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기업원, [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https://www.cfe.org:5004/20160917_11827) (검색일: 2019.11.18.).

정인호,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1위?”, INSIDE,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82> (검색일: 2019.8.16.).

정혜연, “경제를 윤리로 접근하면 안 돼”,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ewsNumb=201907100021>(검색일: 2019.11.20.).

하채림, “브라질 환경장관 ‘아마존 화재감시원 증원 예산 확보 못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45100009?input=1195m> (검색일: 20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극기복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0530&cid=46649&categoryId=46649>(검색일: 2019.9.4.).

황경상, “환경 파괴 주범은 자본주의…생태사회주의가 출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6072139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6072139015)(검색일: 2019.10.16.).

##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n the Ethical Limitations of Capitalism and the Hong-Ik-In-Gan Thought Alternative.

Moon, Hyun-Jin

*Department of Earth management,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limitations of capitalism by ethically analyzing it, the modern dominant economic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ought of Hong-Ik-In-Gan, the founding ideology of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present alternatives on thought of Hong-Ik-In-Gan to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s created by capitalism. The capitalist economy uses human selfishness and greed for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of material abundance. Capitalism makes us recognize the morality and moral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the human community as secondary and neglected. In a capitalist society, members are confused by moral values and have a problem of reduced self-consciousness. They fall into one's own interest or suffer from constant competition. In addition, the pursuit of excessive economic development raises the issue of global ecosystem destruction. At this

present point, the coexistence philosophy of thought of Hong-Ik-In-Gan is significant.

All religions require human efforts to harmonize individuals, communities, private interests and the common good. Capitalist societies, however,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cy and rationality, neglects the restoration of human values through religious teaching. Among the economic and moral values, two centers of society, moral values are not taken seriously. In the state where human ethics and morals are missing,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modern society by focusing on the private interests of ones rather than the coexistence between beings. In thought of Hong-Ik-In-Gan, man is a divine being who inherits the heavenly character and is the subject of peace whose purpose is to cultivate virtue. This thought of Hong-Ik-In-Gan is in line with administrat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which i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economy 'to manage the world and save the people.'

The implications of thought of Hong-Ik-In-Gan as an alternative to overheated private pursuit and competition will be very important. The alternatives to overcoming the ethical limitations of capitalism is to cultivate moral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ue meaning of the economy and to understand the economic ideology based on the thought of Hong-Ik-In-Gan.

**Key words:** capitalism, selfishness, competition, ecosystem destruction, thought of Hong-Ik-In-Gan